

딸기 병해 진단도 인공지능으로

농진청, 전북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 진단기술 개발... 오늘 현장 연사회 열기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시설 온실 내 재배작물의 선제적 병해 진단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ICT) 활용 인공지능 기반 딸기 병해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딸기 병해 진단 결과

딸기는 온실 내·외부 환경과 양액 관리에 따라 생육환경이 변화되면, 병해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이 진단 시스템 개발로 병해발생 시점부터 진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면, 신속 정확한 병해 진단과 제해 방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컴퓨터공학부 이준환 교수)와 함께 개발한 이 진단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딸기 병해를 인

공지능이 분석해 사용자에게 병해발생 위치와 진단 결과를 보여준다.

온실에서 병해가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병해 진단 서비스에 접속해 병해 부분을 촬영하고 위치정보를 입력

하면,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모델로 정보가 전송돼 곧바로 병명이 표시된다.

사용자가 병명을 클릭하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www.nongso.com)와 연계돼 발생 원인과 주요 조치 방법을 알려준다.

연구진이 이 진단 시스템을 딸기 병해에 적용한 결과, 딸기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 6종을 판별하는데 92.6%의 정확도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30일 국립농업과학원 첨단디지털 온실에서 현장 연사회를 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딸기 이외에도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병해를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병해 진단기술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병해 진단기술은 관련 병해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조체계를 마련한 후, 현재 연구 중인 무인 방제기술과 지능형 복합환경 제어기 등과 연계한 농업공학 기술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김금춘 과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작물 병해충 분야에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해 시설원에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제에서 딸기 디지털 온실을 운영하며 MRO 농업인은 "딸기 병해를 쉽게 진단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이전보다 딸기 수확량은 늘고 품질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장수사과, 라이브커머스에서 만나요

전북농협, 네이버 쇼핑 통해 31% 할인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가격인정을 위해 30일 오후 3시부터 농협몰과 네이버쇼핑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으로 '장수사과'를 판매한다.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장수군과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장수농협, 장계농협이 협력해 명품 '장수사과'를 홍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전북본부 온라인지역센터에서 진행하며 주문 받은 후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익일 택배 발송할 예정이다.

방송시간 동안 장수사과 5kg 상품을 시중가격 대비 31% 저렴한 가격인 2만5,900원에 500박스 한정 무료 배송·판매하며 잠바꾸기 쿠폰, 사과즙 증정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교차가 큰 해발 450m 이상의 깨끗한 고원지대에서 생산되는 장

수사과는 육질이 단단하여 과즙과 식감이 풍부하고, 착색이 좋으며 당도 또한 우수하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장수사과를 홍보하고 판매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라며 "라이브커머스의 장점인 생방송 소통을 통해 제품의 장점을 충분히 안내하고,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에 맞춰 지역농산물을 알리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종성 신임 부사장 취임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 새 부사장에 전종성 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지원2팀장이 임명됐다.

신임 전종성 부사장은 1962년 전남 보성 태생으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워싱턴대에서 각각 정책학,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특허청과 정보통신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현장 실무와 정책관리 역할을 쌓아왔다.

전 부사장은 29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취임 인사를 나누고 2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김윤상 기자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2021. 11. 29(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중기중앙회 개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서 제기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한도가 2배가 상향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대비가 필요하며 업계 현실을 감안한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 올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과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조정단계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감면율이 중소기업보다 큰 반면,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은 대기업이 0.14%인 것과 비교해 중소기업은 9.45%로써 중소기업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더불어 앞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제

를 합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매우 커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찬희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발족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 공모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29일 공고를 통해 상임이사(개발사업본부장)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대내외 이해관계 조정능력, ▲공공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와 업무추진 능력 등의 역량이 요구되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결격사유 및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지원서류는 공사 상임이사 후보자 모집 홈페이지(http://screenmake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LX, 국토부 산하기관 기록관리협의회 개최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복원 전략 논의



LX중사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LX라키비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국가기록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LX중사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LX라키비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기록관리공단, 한국부동산원 등 기록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LX공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20여개 기관의 기록전문가들은 ▲차세대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기록물 보존·복원 전략 ▲기록관리 우수사례 공유 ▲내년도 협의회 활동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 등 공공기록관리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LX공사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LX공사는 지적재산권과도 등 다양한 중요 기록물을 LX라키비움으로 이관

해 안전하게 관리·보존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X중사는 2020년 12월 충남 공주시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기록관 중심의 라키비움(Lachivium)을 완공해 기록관리사업 및 다양한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해달라”

전북상협, 건의서 전달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재연장해달 것을 촉구해 나섰다.

전주, 익산, 군산, 전북새삼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병남)는 29일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 해달라'를 청원대를 비롯한 국무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건의서를 통해 "군산지역은 지난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되고 곧바로 2018년 5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하루이튿날 수십여개의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1만 5천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지역은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노동자 생계부담 완화, 사업주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을 해왔지만, 지난 2021년 상반기 군산시의 고용률은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유출 역시 지난 6년간 1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악재로 군산지역의 산업·고용 위기는 더욱 심해졌고 지역의 소상공인마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군산시 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이처럼 지역의 고용창출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몰된다면 고용위기지역 재지정이 일몰된다면 전북도민과 군산시민에게 어려움을 감수하고 알아서 생존하라는 뜻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군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재연장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병남 전북상협 회장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의 고용인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미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군산 경제 상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연속성 있는 고용지원 정책을 펼쳐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농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초 100억불 돌파

2017년부터 신남방·신북방 개척 등 수출진흥 정책 추진 결과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 25일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1990년대 본격적인 수출 이후 2008년 한식 세계화 추진 등으로 한국 음식과 식문화가 전세계에 확산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신시장(신남방·신북방) 등을 집중 개척하는 등 수출진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동안 농수산식품 수출은 전 세계 20개국으로 수출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전체 수출이 위기에 직면했던 2020년에도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수출실적(98.7억불)을 달성한 것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지속과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더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 최근 10년(2011~2020년) 동안 최고 증가율(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1%↑)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했다.

농수산식품 100억불 수출 달성은 농어·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민간에서는 농어가와 수출업체 주도

의 수출 조직화를 통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안정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수출 경쟁력을 높였으며, 정부는 해외 조직망을 활용한 정보제공 및 비관세장벽 대응, 온라인 시장 판로 개척, 물류 인프라 확충, 유망품목 육성 등을 통해 이를 뒷받쳤다.

100억불 수출 달성을 이끈 품목이 농어·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100억불 수출 달성을 이끈 품목이 농어·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김치와 인삼은 한류 확산과 세계적인 건강식품 관심 증가에 힘입어 미국·일본·신남방 시장을 공략하며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100억불 수출 달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수출 증가 폭을 계속 높여 나가 농어·수출업체 등 민간부문과 정부·공공부문이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를 다짐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